

# 초발심수행자의 길로 인도

## 조계종 교육원 5~8일 행자입문 교육 첫 실시

갖출가한 행자를 위한 조계종 교육원의 행자입문교육이 처음 실시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승)은 2월 5~8일 태화산 전불교문화원에서 제1차 행자입문교육을 실시했다. 행사는 교육원장 현승 스님 취임 이후 진행중인 종단 교육진흥 계획의 일환으로 최초 실시된 것으로, 행자등록을 마친 2개월 이내 행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이다.

이번 제1차 입문교육에는 최근 2개월 내 출가한 행자 26명(남행자 16명, 여행자10명)이 참석했다. 행자들은 나흘간 입정을 통해 출가자로서의 신심을 다지고, 사찰 생활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

첫째 날,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강의 '출가자의 길'을 통해 출가자로서의 다양한 진로 및 목표를 제시해 행자들이 각자의 출가생활의 로드맵을 준비하도록 도왔다.

둘째 날에는 연수국장 광선 스님이 강의 '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에서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의 현황과 위상 등을 설명했다. 또,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은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 부처님이 제시한 출가수행자 상을 제시했다.

셋째 날에는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이 계율과 출가자의 윤리에 대한 강의 '불교와 윤리'를, 박범석 동국대 외래교수가 '성격유형 이해에 있어그림' 등을 교육했다.



2월 8일 조계종 제1회 행자입문교육 회향식에 앞서 행자들이 오계를 수지하는 모습.

넷째 날에는 해남 스님(통도사 율주)이 특강 '내가 본 불교'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출가자의 자세를 설명하고, 오계를 수계했다.

특히, 매일 마련된 '사찰생활상담'에서는 은산·담교 스님이 상담사로 참여해 행자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전했다.

교육 후 설문조사도 실시됐다.

광선 스님은 "설문조사 결과, 행자들이 불교에 대한 특별한 신앙 없이 발심만으로 출가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밖에서 본 출가자의 생활과 안에서 행자로서 겪고 있는 삶이 다른 데서 오는 괴리감, 행자끼리 등 사찰 구성원간 갈등에 고민하는 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데 입문교육의 초점을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발심만으로 출가를 결심한 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찰 생활 등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움이 많다. 행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편안케 하고, 조계종단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출가자로서의 원력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행사"라고 말했다.

8일 회향식에서 현승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은 삶의 문제를 벗어나 있지 않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수행"이라면서 "부처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지혜는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지혜는 부처님 가르침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자비를 표현·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정법에서 어긋남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비행자·보살의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 '고불암 조사 촉구' 총무·호법위 연석회의

조계종 중앙총회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무자)와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법광)는 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해인사 고불암 경매 및 토지 수용과 관습사 토지 처분 등 현안 사태에 대해 총무원의 신속한 조사가 요구된다. 위법사항을 발견 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은 2월 9일 경매처분에 들어간 해인사 고불암의 무량수전과 관련해 감사국 주관 하에 재무부, 호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조사팀을 파견해 현황파악을 진행 중이다. 이날 각 분과위원회는 조사 중임을 감안해 3월 8일 종회에서 보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원회 등 종회차원의 조사기구 구성은 논의에 그쳤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김포 용화사 주지 폭행사건과 조계사의 국경원 직원 출입금지 관련된 보고서"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설날 공동차례 지내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2월 11일 센터 내 강당에서 '설 공동차례지내기'를 개최했다. 고향에 가지 못하거나 직접 차례를 준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웃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마당과 서울노인복지센터 시예동아리 어르신들의 지방썰매주행 행사, 어르신 장기자랑도 함께 진행됐다.

박재원 기자

# 직할교구 주지 인사고과제 실시

## 조계종 올 상반기 시범 운영

조계종이 올 상반기부터 직할교구에 주지 인사고과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교구신도회 구성, 복지거점사찰 지원 등을 통한 포교의 효율성 제고를 시험한다.

조계종 직할교구(교구장 자승, 당연직 총무원장)는 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10년 제1차

교구총회를 열고 신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인사고과제도 시행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부터 직할교구 사찰 주지는 임기 만료 3개월 전 종령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임직을 평가받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총무원장, 총무·재무·포교

부장, 총무원장 추천 2인(가안)으로 구성되며 총무행정, 포교·복지·재정·불사 분야에 걸쳐 각을 병행 무 5단계로 평가가 진행된다. 이에 앞서 사찰 주지는 연 1회 수입과 지출, 총무원장의 전방을 담은 보고서의 의무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교구총회에서는 4월 직할교구 신도회 창립 및 복지사찰 지원 사업 등 2010년 사업계획도의 결했다. 각 사업에 따른 직할교구 총 예산액은 2억4899만9천원으로 확정됐다.

노덕현 기자

# 관음사 부채 해결 위해 땅 팔기로

## 경매 막을 미봉책... 종단 사찰 관리 한계 드러내

전임 주지의 과도한 채무로 사찰 토지가 줄줄이 강제경매에 넘어간 제주 관음사가 경매를 막기 위해 결국 땅을 팔기로 했다.

제주 관음사주지 원중은 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경매사태에 이른 관음사에 종도들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관음사의 경매사태는 17년간 재임하던 전 주지 종원 스님(말빈)이 관음사에 떠넘긴 부채 35억원에서 비롯됐다.

종원 스님은 1991년 관음사에 부임해 2002년까지 주지를 지냈다. 2002~2007년 회주로 있는 동안에도 종현·종법에도 없는 '주지권한 포괄위임'을 받아 실질적인 주지 행세를 해왔다. 스님은 17년 동안 주지 소임을 살았지만 관음사를 떠날 때는 장부와 통장, 신도카드 등 일체의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

17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 자료가

사라진 관음사에 남은 것은 12억원의 금융부채. 여기에 종원 스님의 측근이 나서 관음사에 빌려준 돈 21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원중 스님은 "관음사에 대여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한 사람은 종원 스님 상좌인 H 스님(김00, 말빈)을 비롯해 측근인 S 스님(원발사 주지, 말빈), 전측사 신도로 추정되는 이00 보살"이라며 "한때 같은 조계종 승려로서 관음사에 재입했던 사람들이 관음사의 삼보정재를 공중분해 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 비뚤하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관음사가 '종원 스님 측근'으로 파악한 채권자들은 현재 관음사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건 상태이다. 특히 현공 스님은 종원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승소하자 채권을 추신해 관음사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사찰 소유 토지를 강제경매에 넘겼다.

관음사는 총무원에 기재승인을 얻어 공탁을 걸고 강제경매를 중지

해 놓은 상태이다. 관음사는 3년여 이어진 소송비용과 공탁금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중 스님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크다.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적극대응해 관음사 도량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교계에서는 관음사 사태를 계기로 종단 차원에서 삼보정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총무원 기획국장 만담 스님은 "관음사 사태는 종단 사찰관리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현행 종현·종법대리인 주지가 신도 등과 합의해 사찰을 매각해도 사회법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음사 소송을 진행 중인 김병석 변호사는 "전임 주지가 주지해임을 수용하지 않으면 직무정지가처분이 발효될 때까지 예금인출 등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 준비와 목탁

## 종립 동국대학교의 초라한 위상

이명박 대통령은 부처절의 외교적 처신으로 수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일왕과 악수할 때 고개 숙인 모습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가 하면, 2008년 가을 러시아 순방 때는 러시아에서 외교장관이 아닌 외교차관이 영접을 나와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근 동국대는 "오 총장이 미국을 방문해 위스콘신대, UCLA 등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문제는 학술교류협정 체결 주체이다. 오영교 총장은 UCLA에서 총장 아닌 처장급 인사와 협정을 체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저자세 외교'가 생각난다.

지난해 가을부터 동국대는 UCLA와의 학술교류협정 체결에 특별한 공을 들였다. 당시에는 정 부로부터 약학대 건립 승인을 받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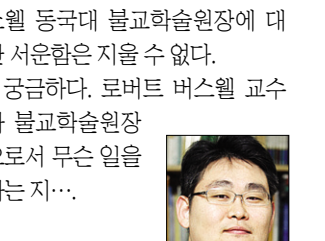
한 관계자에 따르면, 동국대는 오 총장과 UCLA 총장의 만남을

공교롭게도 수개월 후 오영교 총장은 UCLA에서 버스웰 교수가 배석한 가운데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UCLA 총장은 만나지 못한 채, 오영교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 처럼 실용외교를 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로버트 버스웰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에 대한 사운함은 지울 수 없다.

공급하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불교학술원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는지...

공교롭게도 수개월 후 오영교 총장은 UCLA에서 버스웰 교수가 배석한 가운데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UCLA 총장은 만나지 못한 채, 오영교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 처럼 실용외교를 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로버트 버스웰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에 대한 사운함은 지울 수 없다.

공급하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불교학술원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는지...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 실전 및 현장 위주의 교육을 합니다 ”

## 포교는 정말 시급한 과제입니다



### 국내 및 해외 포교사 양성을 위한 포교전문대학원

# 부처님 세계는 블루오션입니다

## 한국불교와 세계불교 그리고 능인선원 본원과 지원을 이끌어갈 제 2세대 핵심인재와 전문포교사를 모집합니다. Foreign monks also welcome!

포교에 헌신할 스님과 신심있는 재가불자 등 미래불교를 개척할 원력을 지닌 분들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1. 지원자격

스님 : 국내외 포교활동과 절을 운영하려고 하는 스님(외국스님 포함). 재가자 : 불교대학 전문과정(1년 또는 2년)을 수료한 자. 이에 준하는 사례에 한한다. 00명.

### 2. 과정

1년 과정 2학기제 :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 의식집전, 포교방법 불교사상 불교문화, 사찰행정, 사찰경영, 스피치 교육, 설법 발표 토론, 수행지도법

여름/겨울방학 집중코스 : 설법발표, 수행지도법 강화, 의식집전 실습·토론

### 3. 시간

토요일 : 10시-13시(설법강의/발표/토론) · 평일오후반 : 월요일 오후(3시-6시)

평일저녁반 : 금요일 저녁(7시-10시) 선택, 나머지 시간은 시간여유와 능력에 따라 교수별 개인지도 및 밀대일 실습.

### 4. 학비 : 학기당 30만원

5. 지도교수 : 스님 및 국내외 저명교수

6.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장래 활동계획(3쪽 내외)

### 7. 혜택

능인 대학원(화성) 입학 특전. 미국유학 시 미국 능인 뉴욕국제대학(NIU) 입학 특전. 포교당을 운영 시 운영 노하우 제공. 능인 전문 포교사 자격증 부여.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부, 교도소 군포교, 직장포교, 가정법회 등 포교활동 시에 능력별 경제적 지원. 우수한 자는 능인선원의 본원과 지원, 국외 포교당 개설시 주지 발령 및 운영자격 우선 부여.

### 개강일 : 2010년 3월 15일(월)

지원양식 다운로드 : [www.gotobuddha.org](http://www.gotobuddha.org) / 커뮤니티 / 자료실

계좌번호 : 100-025-946270 예금주 능인선원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접수 또는 e-mail / momwjm@hanmail.net

접수기간 : 2010년 2월 말까지

연락처 : 010-8288-3416 (백도수), 010-4292-1882 (IT본부)

※ 능인 교무 행정처 요원 모집 : 신심 있는 불자로서 교무행정경력자를 뽑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055번지 Tel. (02)577-5800 Fax. (02)577 0952